

한국 경영학 교수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손 태 원*
김 주 엽**
김 민 수***
정 현 식****

국내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바로 전임교수 부족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경영학 분야의 교수인력 수급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 규명, 그리고 해결방안에 관련된 기초자료와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경영학과(부 또는 계열)가 개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재학생 및 전임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 및 수업에 대한 현황을 설문을 통해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대학교 전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교과부 통계자료, 2008)가 24.5명인데 반해 경영학과의 경우 44.2명에 달하고 있다. 경영학과 재학생의 증가율은 전체 대학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나, 경영학과 전임교수의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교육 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전임교수 채용이 늘고 있어 인증제도의 도입이 경영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임교수를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해외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대학들이 박사과정에 집중하여 역량 있는 전임요원 육성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학 교육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정적인 교수 공급을 위한 학계 및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제어: 교수수급,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경영학교육, 경영학교육인증, 한국경영교육인증원

1. 서론

1.1 연구배경

1955년 고려대학교가 상과대학을 설립하고 현대식 경영학 교육을 시작한 지 5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최만기·김주엽, 2005). 그리고 그 5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4년제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2008년 현재 전국 169개 대학교에 경영학 관련 학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재학생은 4년제 대학생 전체 1,330,080명의 8.9%인 117,960명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 2008). 경영학을 복수로 전공하고 있거나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커질 것이다.

국내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경영학 교육의 양적인 증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논문접수일: 2009. 12. 21. 게재확정일: 2010. 09. 13.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sontw@hanyang.ac.kr)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jookim@chungbuk.ac.kr)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kimmin@hanyang.ac.kr),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chris3010@hanmail.net)

이 경영학 분야의 전임교수 부족 문제다. 경영학 분야의 교수수급에 대한 문제는 대표적으로 1988년 “한국경영학 30년 회고와 전망”(소덕진 외 47명, 1988)과 1989년 손태원·권태형의 “경영학분야 교수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기 되었으며, 1996년 한국경영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대학원 중심교육과 경영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교수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남상구·강준구·김언수, 1996). 계속해서, 2004년 한국경영학회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박헌준·권태형(2004)은 “경영학 교수수급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경영학 분야 교수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증가하는 학생 수로 교수1인당 학생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교수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수는 적은 다소 모순적인 교수수급 구조를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교수수급을 비롯한 경영학 분야 전반에 대한 학계의 문제제기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영학회는 “한국경영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손태원외 6명, 2004)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로 2005년 8월 경영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식 경영학 인증을 위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었다.

경영학 전임교수 수급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영학 분야 전체의 통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과 현재 대학들이 처해 있는 교수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영학 교수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경영학을 교육하고 있는 전국 169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충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학 전임교수 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경영학 관련 학부 및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학생 및 전임교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영학과(계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학과(계열) 전임 교수 인력의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를 예측하는 한편, 미래의 교수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육성(지원)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3 설문조사

1.3.1 설문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경영(계열) 학부 및 학과가 설치 운영되는 169개 대학(교육과학 기술부 통계자료, 2008)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은 우편을 통해 발송과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38개 대학이 설문에 응하여 설문회수율은 22.5%이다. 설문에 응한 38개 대학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이 21개교(55%), 지방소재 대학이 17개교(45%)이다. 운영형태별로는 국립대학이 9개교(24%), 사립대학이 29개교(76%)이며, 38개 대학 중 19개 대학(50%)은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경영학분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심사 중에 있는 대학이다.

1.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 구성은 각 대학의 경영

학과(계열) 재학생 및 전임교수 현황, 수업에 관한 항목, 그리고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구성은 경영학과(계열)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학기별 재학생 수와 전임교수의 수, 전공개설 강좌 수, 전임교수의 담당강좌 수와 강의 시간, 그리고 개설 강좌 당 평균 수강생 수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구성은 일반대학원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 대학원 및 MBA프로그램 설치 여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전공별 재학생 현황 및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그리고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 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번째 구성은 경영학과(계열) 전임교수와 관련된 것으로, 각 대학의 경영학과 전공별 전임교수 수와 전임교수의 학위 취득사항, 최근 3년간의 전임교수 채용인원, 향후 2년 내 전임교수 채용계획과 함께 국내박사 학위자의 전임교수 채용 시에 고려하는 사항과 경영학과(계열)의 발전계획 및 전임교수 채용에 대한 2개의 자유기술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본론

2.1 경영학과 학생 및 전임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학과 전임교수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경영학과 재학생과 전임교수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2.1.1 경영학과 학생

대학에서의 경영학 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경영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수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기업 숫자 및 규모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75년에는 경영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72 개로 늘어났으며(송계충, 1999), 그 후 30여년이 지난 2008년 현재, 경영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69개¹⁾에 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 2008).

경영학과 설치 대학의 증가는 경영학과 재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져, 2008년 현재 전체 경영학과 재학생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대학교 재학생 1,330,080명의 8.9%인 117,960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 대비 경영학 전공 재학생 수는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그러한 증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제 대학교 총 재학생의 증가율은 5%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내 경영학과 재학생은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에다 최근에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영학 복수 전공자나 부 전공자를 포함한다면 실제 대학생 대비 경영학 전공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38개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계열)의 평균 재학생 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1,170명으로 2006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경영학과 재학생은 <표 2-1>에서와 같이 8.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대학교 재학생 증가율이 3%인 점을 감안하면 2배를 상회하는 증

1) 일반 4년제 대학교, 산업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각종대학 및 원격(사이버)대학 포함

〈표 2-1〉 대학교 재학생 및 경영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학교 재학생		1,263,932	1,290,680	1,318,029	1,330,080
경영학과 재학생		102,506 (8.1%)	108,843 (8.4%)	113,499 (8.6%)	117,960 (8.9%)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 재학생		-	41,338	43,368	44,478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 평균 재학생 수		-	1,088	1,141	1,170

- * 자료출처: 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
대학교 N=175, 경영학과 설치대학 N=140, 설문응답대학 N=38
- * 교육통계서비스의 대학교 전체 재학생 수임.
- * 교육통계서비스의 학과 분류에 의한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재학생 수임.
- * ()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

가을이다. 따라서 취업난 등으로 경영학 관련 전공으로의 학생 편중이 심화 될 경우 경영학과 재학생이 전체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2.1.2 경영학과 전임교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경영학 전공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문제가 경영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이다. 경영학과의 양적인 팽창은 결국 경영학을 교육하는 전임교수의 부족을 동반했고, 1980년 이후로 경영학 전임교수 부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박헌준·권태형, 2004; 손태원·권태형, 1989; 최만기·김주엽, 2005; 황일청, 1988, 1999). 그리고 이렇듯 전임교수 부족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황일청 교수(1988)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지는 수급의 제도적인 문제, 즉 교육대상 인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교육인력을 충당하는 방식이 낡은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그러한 교육정책의 유산이 지속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2008년 전국 대학교 전임교수 수는 〈표 2-2〉에서와 같이 54,199명으로 2005년도 대비 10.3%

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수치는 대학교 재학생이 동 기간 동안에 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로, 대학교의 전임교수 부족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재학생 수에서 15% 증가를 보인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전임교수 증가가 12%에 그쳐 오히려 교수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표 2-1, 2-2 참조〉).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재학생에서 경영학과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9 % 이지만, 전임교수의 경우 전체 전임교수 중 경영학과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불과하다(〈표 2-1, 2-2 참조〉).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 22063호)을 살펴보면 제6조 1항에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설립 시 확보하여 할 교원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은 경영학과(계열)가 속한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표 2-2〉에서 보듯이

〈표 2-2〉 대학 전체 및 경영학과 전임교수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학교 전임교수		49,158	51,578	52,648	54,199
경영학과 전임교수		2,383 (4.8%)	2,569 (5.0%)	2,629 (5.0%)	2,668 (4.9%)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 전임교수		-	896	944	982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 평균 전임교수 수		-	23.6	24.8	25.8
대학교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	25.0	25.0	24.5
경영학과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	42.4	43.2	44.2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	46.1	46	45.3

- * 자료출처: 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
- * 대학교 N=175, 경영학과 설치 대학 N=140, 설문응답대학 N=38
- * 4년제 대학 경영학과 교수 수는 교육통계서비스의 학과 분류에 의한 경영학과만을 합산한 수치임.
- * 대학교 및 경영학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의 재학생수와 전임교수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임.
- * ()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

2008년도 기준으로 대학교 전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5명으로 교수 한 명당 학생수가 25명 미만에 그치고 있지만, 경영학과와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1 : 44.2에 달하여 평균에서 크게 뒤쳐져 있으며, 법적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영학과(계열)의 경우 다른 전공에 비해 복수전공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전임교수 수급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데 있다. 〈표 2-2〉의 통계를 보면 전임교수 전체의 수치는 2007년에 전년도 대비 2.0% 증가에서 2008년에는 그 비율이 2.9%로 늘어난데 반해, 오히려 경영학과 전임교수의 증가율은 2007년 전년 대비

2.3% 증가에서 2008년에는 그 비율이 1.5% 증가에 그쳐 경영학과 재학생의 증가 추이와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조사에 응한 38개 대학을 대상으로 2006년~2008년 기간에 대해서 경영학과(계열) 재학생 증가와 전임교수 증가를 비교하여 보았다. 재학생 수는 2006년 41,338명에서 2008년에 44,478명으로 7.6% 증가한 반면, 전임 교수 수는 2006년 896명에서 2008년 982명으로 9.6% 증가를 보여 전체 대학 통계와는 달리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수치는 설문에 응한 38개 대학 중에 절반인 19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심사 중인 대학으로 이들 대학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전임교수 충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3〉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원산출기준(별표5)

(단위: 명)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제 6조 1항

〈표 2-4〉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계열)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학부생 기준)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경영학과	42.4	43.2	44.2
설문응답 대학	46.1	46	45.3
국립대(9개 대학)	40.4	43.9	43.6
사립대(29개 대학)	48.0	46.6	45.8
인증(19개 대학)	41.7	39.6	38.6
비인증(19개 대학)	52.6	55.1	55.0

* 설문응답대학 N=38

〈표 2-2〉를 통해서 설문에 응한 38개 대학은 최근 들어 전임교수를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을 기준으로 교수 일인당 평균 학생 수가 45.3명으로, 전체 수치인 44.2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전임교수의 수업부담과 업무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경영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이미숙·최남희, 2001; 박헌준·권태형 2004).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 대학 전체 평균보다도 배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영학과(계열)는 따라서 경영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경영학과(계열) 전체가 전임교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2.2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계열)²⁾ 수업

앞에서 경영학과 전임교수의 1인당 학생 수가 대학교 전임교수 1인당 평균 학생 수보다 크게 많은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 조사에 응한 38개 대학들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공개설 강좌 수, 전임교수 전공개설 강좌 수, 강좌 당 평균 수강인원, 전임교수 담당 강의시간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경영학 전임교수들이 얼마만큼의 강의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상 대학들의 전공과목 평균 개설강좌 수는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93.4개 강좌에서 2008년 98.8개 강좌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교수의 평균 강좌 수도 2007년 55.5개 강좌에서 2008년 59.7개 강좌로 7.6% 증가하였다. 전임교수 담당 강좌 수 증가율이 평균 전공개설 강좌 수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강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응답 대학의 평균 전공 개설 강좌에서 전임교수 담당 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0.4%로 2007년의 59.4%에서 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아직도 전체의 39.6%에 달하는 강좌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전임 교수들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 수가 많으면서도 전임교

2) 경영계열은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 및 학과

〈표 2-5〉 설문응답 대학 평균 전공 강좌 및 전임교수 강의관련 주요지표 (단위: 수/시간)

구분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전공개설 강좌 수	84.8	93.4	98.8
강좌 당 평균 수강인원	66.9	66.2	66.2
전임교수 담당강좌 수	48.8(57.5%)	55.5(59.4%)	59.7(60.4%)
전임교수 1인당 강좌 수	2	2.2	2.3
전임교수 1인당 강의 시간	5.9	6.3	6.5

* 설문응답대학(N=38) 평균 전임교수의 담당 강좌 수
 * 전임교수들의 대학원 강좌 수는 포함되지 않음.
 * ()안은 전체강좌 수 대비 비율임.

수의 담당강좌 비율이 전체 전공 개설 강좌의 60% 수준에 달하는 것과 맞물려 우려되는 점은 강좌 당 수강인원이다. 강좌 당 수강인원이 많으면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토론식 수업이나 조별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하고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 대학들의 경영학과(계열) 평균 강좌 당 수강인원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66.2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06년과 비교해도 0.7명 감소한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하다. 전공 개설 강좌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열 재학생 수가 증가하여 강좌 수 증가 효과를 상쇄해 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좌 수가 증가하고 담당 강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재학생 증가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전임교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임교수들의 강의 부담 개선이나 궁극적으로 경영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다.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의 전임교수들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주당 2.3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당 6.5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전임교수의 담당 강좌수와 강의 시간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2006년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임교수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늘어나는 경영학과 재학생을 감당하기에는 전임교수의 증가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교수들의 강의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설문에 응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학과 수업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살펴보다라도, 전임교수의 강의부담은 전임교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 2-5〉와 같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임 교수들의 대학원 수업에 대한 강좌 수와 강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 전임교수들의 실제 강의부담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경영학과 전임교수의 절대적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것만이 경영학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2.3 설문응답 대학 경영학과(계열) 교수

경영학 전임교수에 대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경영학 전임교수와 앞으로의 채용 계획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안타깝게도 총 169개 대학(또는 학부 및 학과)에서 38

〈표 2-6〉 설문응답 대학 전임교수 전공별 인원현황 및 향후 2년 내 채용 필요인원

(단위: 명)

전공	구분	현재 인원	전공	구분	향후2년 내 채용 필요인원
회계		166(17.5%)	회계		32(19.3%)
MIS		119(12.6%)	MIS		10(6.0%)
마케팅		117(12.3%)	마케팅		32(19.3%)
재무		115(12.1%)	재무		21(12.7%)
인사/조직		99(10.4%)	인사/조직		21(12.7%)
생산		90(9.6%)	생산		12(7.2%)
국제경영		58(6.1%)	국제경영		8(4.8%)
계량경영		40(4.2%)	계량경영		2(1.2%)
전략		29(3.1%)	전략		8(4.8%)
금융보험		18(1.9%)	금융보험		1(0.6%)
e-비즈니스		12(1.3%)	e-비즈니스		2(1.2%)
경영통합		7(0.7%)	경영통합		0(0.0%)
기타		78(8.2%)	기타		17(10.2%)
계		948(100%)	계		166(100%)

* 설문응답대학 N=36

개 대학만이 설문에 응답하여 경영학 전체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전임교수와 재학생의 비율 측면에서 전체 대학교 경영학 통계와 설문 대학 통계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대학의 대체적인 현황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별 전임교수는 회계학 전공이 166명으로 전체 경영학 전공 전임교수의 17.5%를 점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회계학 전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MIS(12.6%), 마케팅(12.3%), 재무(12.1%), 인사/조직(10.4%) 전공이 차지하고 있다. 회계학 전공이 많은 것은 많은 대학들이 경영학과와 함께 회계학과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것은 기타 전공 전임교수가

78명으로 경영학 전임교수 948명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경영학 이외 기타 전공 전임교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경영학 분야가 이전의 경영관리 기능분야 중심에서 경제학이나 통계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등 경영학 기능 학문과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으로 보여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학 전공 교수자원의 부족으로 타 전공 자원을 경영학 교수로 임용하는 미국의 예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ACSB의 조사 결과(AACSB eNEWSLINE, June/July 2009)에 따르면, 미국 경영대학들이 경영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를 통한 전임교수 배치가 어려워지자 “Post-Doctoral Bridge to Business Program”을 통해 경제학, 공학, 수학, 심리학, 사회학, 통계

학과 같은 비 경영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들로 하여금 경영대학 교수로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2년 내 설문 응답 대학들의 전임교수 채용 필요인원은 모두 166명으로, 전공별로는 회계와 마케팅 분야가 32명으로 가장 많은 채용이 예상되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고, 재무, 인사조직 분야가 각 21명씩으로 뒤를 잇고 있다. MIS와 생산관리 분야는 각각 10명, 12명의 채용이 계획되어 있고, 비전공분야의 채용도 17명이 계획되어 있다. 전략분야는 현원이 29명인데 앞으로 2년 내에 8명의 채용이 계획되어 있어서 27.6% 증가가 예상된다. 계획대로 채용 필요인원이 모두 충원이 된다면 현원 대비 17.5%의 증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학생 인원을 현원으로 고정했을 때 전임교수 일인당 재학생은 39.9 명이 된다. 아직도 대학교 전체 평균과는 큰 거리가 있는 수치다. 앞서의 분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영 계열 전임교수의 부족은 만성적인 것이며, 이러한 전임교수 부족 현상이 부실한 경영학 교육의 핵심 원인들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경영학 전공 재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생 대비 전임교수 수가 타 전공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전임교수의 증가율이 전체 전임교수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경영학 교육에 대한 대학 당국이나 교육계의 잘못된 시각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경영학과(계열)의 전임교수 부족은 만성적인 것이었는데, 이러한 만성적인 전임교수 부족 현상이 오히려 그러한 부족현상을 교육계

나 대학당국으로 하여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경영학 교육은 별다른 부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도 적당한 능력을 갖춘 경영학도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리라는 교육계나 대학 당국의 생각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판단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경영학계의 소극적인 대응이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경영학 전임교수 요원의 공급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타전공과 마찬가지로 경영학 전임교수들의 경우도 박사학위 취득자가 임용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 전체 경영계열 전임교수 수는 2008년 980명이며 이들 980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963명에 이르러 98%에 달한다. 이들 박사학위 취득 교수 963명 중 해외박사학위 취득 교수가 535명으로 55.5%를 차지하며 국내박사학위 취득 교수가 나머지 428명으로 45.5%를 차지하여 해외박사 학위취득자 비중이 더 크다.

현재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가 경영학 전임교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등록자 수는 〈표 2-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임교수 임용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수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을 포함하여 규모가 큰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임교수 대부분을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로 임용하고 있고, 신입 전임교수 초빙 시에도 해외박사학위 취득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해외박사학위 등록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들 대학들이 그만큼 교수 충원에서 어려움을

〈표 2-7〉 학술진흥재단 경영학 분야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등록자 수

(단위: 명)

지역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해외전체	35	49	44	74	31	15	28	46	33
미국	18(1)	35	27(1)	40(1)	25	9	17(1)	28	16

* 자료출처 : 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외국박사학위 종합정보시스템

* 데이터는 학위취득년도를 기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달라질 수 있음.

* ()안 캐나다 학위취득자.

겪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영학과(계열) 전임교수의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데 반해서 해외 박사학위 등록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신입 경영학 교수 시장에서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의 몫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38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채용 유형을 살펴보면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신규 채용된 초임교수가 48명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신규 채용된 초임교수 54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전임교수의 절반 이상이 해외박사 학위 취득자임을 감안할 때 신규 전임교수 시장에서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유입이 감소하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학 전임교수 시장 출현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대학 간 이동을 통해 채용된 전임교수가 59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예외적으로 나타나던 타 대학으로

의 이직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계(연구소 및 기업)에서 학교로 이동한 인원도 39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들 사이에 우수한 교수인력에 대한 치열한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학에서 원하는 스펙트를 가진 신규 인력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에서 관심을 가질 또 하나의 사항은 비경영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임교수 채용도 8명이라는 점이다. 비록 전체 전임교수 채용의 3.7%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이 수치가 경영학의 학문적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학 전공자의 부족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4 설문응답 대학 박사학위 과정

앞에서 보듯이, 국내의 대학들은 경영학 전공 전임교수의 부족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

〈표 2-8〉 설문응답 대학의 최근 3년간 전임교수 채용 유형

대학 간 교수이동	초임 국내 경영학박사	초임 해외 경영학박사	비 경영 계열 박사	산업계 경영학 박사 이동	기타	계
59명	54명	48명	8명	39명	10명	218명
27%	24.8%	22%	3.7%	17.9%	4.6%	100%

* 설문응답대학 N=38

나 <표 2-9>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서 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일부 경영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전임교수의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기준이 교수 1인당 12.5명의 학생 수를 설립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학설립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즉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들의 경쟁적인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전임교수를 채용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해외 경험이나 영어 강의 등을 이유로 해외박사 취득자를 크게 선호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 유입되는 경영학 전공자가 적어서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들 사이에 교수들의 횡적인 이동이 시작되었지만, 해외박사 풀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박사에 의존한 교수부족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서 교수직을 갖고자 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쉽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 대학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대학 학위 취득자가 미국 시장으로 역수출되어 나가는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다. <표 2-10>의 최근 AACSB 자

료(AACSB eNEWSLINE, June/July 2009)는 미국 내 경영대학의 박사학위 전임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전임교수로 채용이 가능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미국 경영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임교수가 부족함에 따라 이들의 권력은 더욱 커지고 그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수업을 더욱 줄이고자 하는, 그래서 더욱 교수 부족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전임교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교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전임교수 인력의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국내 박사과정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장기적으로 인정된 교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사과정 재학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표 2-11>에 의하면, 2008년 박사과정 재학생은 49,402명이며, 그 중 경영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생은 3,843명으로 전체 박사과정 재학생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재학생에서 경영학 전공 재학생이 2005년-2008년 사

<표 2-9> 설문응답대학 중 경영전문대학원 운영대학 평균 전임교수 수

구분	구분	경영전문대학원 미 운영	경영전문대학원 운영
평균 전임교수 수		25.3명	29.2명

* 설문응답대학 38개교 중 경영전문대학원 미 운영 대학 N=33, 경영전문대학원 운영대학 N=5

<표 2-10> AACSB 소속대학 박사학위 교수 비율

기간	구분	박사학위 전임교수	AACSB 소속대학 박사학위 전임교수
2007-2008		82.8%	82.5%
2002-2003		86.8%	86.3%

* 자료출처: AACSB eNEWSLINE June/July 2009

〈표 2-11〉 박사과정 재학생 및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박사과정 재학생		43,472	46,196	47,560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3,099(7.1%)	3,561(7.7%)	3,723(7.8%)	3,843(7.7%)

* 자료출처: 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

이에 15%가 늘어났는데, 박사과정 재학생은 19.4% 늘어나서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박사과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응답 38개 대학교 중에서 경영학 관련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33개 대학이다. 이들 33개 대학교에 2008년 2학기 현재 경영학 관련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695명

으로, 2년 전인 2006년 2학기 521명에 174명, 무려 33%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 2학기 573명보다 21%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대비 2008년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생 증가율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6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33개 대학의 전체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2학기 695명이 고 이 중 Full Time 박사과정 재학생은 45.7%인 318명이다. Full Time 박사과정 재학생은 교수자

〈표 2-12〉 설문응답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Full-Time 전공별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도 1학기		2006년도 2학기		2007년도 1학기		2007년도 2학기		2008년도 1학기		2008년도 2학기	
	Full	Part										
	전공											
회계	49	44	43	36	37	39	37	40	38	42	43	40
재무	23	11	20	9	17	16	21	18	23	28	17	22
인사/조직	39	36	37	32	48	42	54	43	66	63	62	58
생산	14	19	10	21	13	28	9	29	13	41	13	47
마케팅	36	53	31	54	29	68	30	60	44	77	33	61
계량경영	0	0	0	0	0	0	0	0	0	0	1	0
MIS	38	28	41	27	34	35	32	36	31	40	33	44
전략	0	13	0	12	1	10	1	12	3	16	3	17
금융보험	3	0	3	0	5	0	5	1	5	5	5	6
e-비즈니스	0	5	0	4	0	14	0	22	4	28	10	31
국제경영	1	17	4	19	6	19	6	17	6	15	7	7
경영통합	63	20	68	7	67	23	45	7	54	30	43	18
기타	33	24	26	17	32	27	36	12	49	23	48	26
계	299	270	283	238	289	321	276	297	336	403	318	377

* 설문응답대학 N=33

원으로 직접 육성이 가능한 인력으로 향후 전임교수 공급의 양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 풀(Pool)이다.

〈표 2-12〉의 자료를 보면 전공별로 재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박사과정 재학생을 통해 전공별 교수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전임교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학생의 전공별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비인기 전공에 대한 박사과정 재학생의 유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 중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이 설치 운영되는 33개 대학에서 최근 3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는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1명이다. 마케팅 전공자가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20.1%인 9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이

하고 있다. 그리고 MIS, 회계 그리고 인사/조직 전공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2학기 Full-Time 박사과정 재학생 비율은 45.7%이다. 전임교수 자원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한 Full Time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45.7%로 추정할 경우 설문 응답 대학들이 향후 2년 간 채용에 필요한 전임교수 인원 166명을 상회하는 210명이다. 따라서 Full Time 박사과정 재학생을 전임교수 자원으로 양성한다면 전임교수의 양적 공급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학과 전임교수 부족 문제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를 통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4〉는 최근 3

〈표 2-13〉 설문응답 대학 최근3년 간 박사학위 취득자 전공별 현황 및 향후 2년 내 채용 필요 인원

(단위: 명)

전공	구분	최근 3년 간 박사학위 취득자	Full Time 학위 취득자 추정치	전공	구분	향후 2년 내 채용 필요인원
마케팅		93(20.1%)	43	마케팅		32(19.3%)
MIS		89(19.3%)	41	MIS		10(6.0%)
회계		70(15.2%)	32	회계		32(19.3%)
인사/조직		57(12.4%)	26	인사/조직		21(12.7%)
재무		33(7.2%)	15	재무		21(12.7%)
국제경영		20(4.3%)	9	국제경영		8(4.8%)
생산		14(3.0%)	6	생산		12(7.2%)
전략		9(2.0%)	4	전략		8(4.8%)
계량경영		4(0.9%)	2	계량경영		2(1.2%)
e-비즈니스		1(0.2%)	0	e-비즈니스		2(1.2%)
금융보험		0(0.0%)	0	금융보험		1(0.6%)
경영통합		8(1.7%)	3	경영통합		0(0.0%)
기타		63(13.7%)	29	기타		17(10.2%)
계		461(100%)	210	계		166(100%)

* 박사학위 취득자 자료 제출 대학 N=33

* 향후 2년 내 채용 필요인원 자료 제출대학 N=36

* Full Time 학위 취득자 추정치는 2008년 2학기 Full Time 재학생 비율 45.7%로 추정한 수치임.

〈표 2-14〉 설문응답 대학 최근 3년간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업	26(32.9%)	24(35.3%)	19(26.0%)
시간강사	20(25.3%)	20(29.4%)	27(37.0%)
연구기관	11(13.9%)	9(13.2%)	10(13.7%)
전임교수	11(13.9%)	5(7.4%)	3(4.1%)
정부부처	4(5.1%)	3(4.4%)	7(9.6%)
기타	7(8.9%)	7(10.3%)	7(9.6%)
계	79(100%)	68(100%)	73(100%)

* 설문응답대학 N=33

년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규 박사들의 취업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임교수로의 취업은 2008년 3명에 불과하며 취업 인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간강사인 비전임 교수로의 취업은 27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과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 2-15〉는 국내박사 학위자의 임용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국내박사 학위자의 신규 임용에서 재무·회계 및 마케팅 분야의 임용이 다른 전공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전공 분야에서는 국내 박사 과정을 통한 교수인력 육성과 채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의 노하우를 다른 분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계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전임교수 채용이 적은 것은 이미 비전임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전임교수로의 채용을 대기하는 인력들이 많은 점이란 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학들의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선호와 국내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임용 기피 경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38개 대학 중 31개 대학이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의 전임교수 신규 채용 시 고려사항 1순위로 연구 실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규 전임교수 채용 시 해외박사학위 취득자를 선호하는 것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학 분야 전임교수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표 2-15〉 국내 박사학위자 신규임용 전공별 현황 (단위: 명)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	전략	경영공학	경영정보	인사조직	세무	기타	계
11(3)	8(2)	6(2)	4(2)	2	3(2)	4	2(1)	2	1	43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대학(22개교) 전임교수 현황자료

* 채용기준: 2006년~2008년, ()안은 타대이동

III. 결론

3.1 연구요약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의 기본 동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경영학과(계열)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경영학 교육의 질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다. 경영학과(계열)의 양적 성장에는 항상 전임교수의 부족 문제가 동반되었다. 전임교수의 부족은 높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로 나타난다.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전임교수의 수업부담과 업무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영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8년 4년제 대학교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4.5명인데 반해 경영학과의 경우 44.2명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 2206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25명의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적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각 대학들의 적극적인 전임교수 채용 확대에 의한 전임교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계열)의 전임교수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난제이다. 경영학과(계열)의 학생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임교수 증가 문제는 거시적으로 황일청 교수(1988)가 지적했듯이 교육대상 인원의 선(先) 확보와 후(後) 교육인력 확보라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전임교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북미지역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국내 유입 감소는 결정적 원인이다. 따라서 전임교수 부족과 북미지역 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임교수 채용 확대가 시급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이미 신규 전임교수 채용 시 국내 학위 취득자가 해외 학위 취득자를 앞선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신규 전임교수 채용에 대학들

은 소극적이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도 연구 실적이 채용의 우선 고려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2 연구제안

교수수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제안사항은 <표 3-1>과 같다.

선행연구들의 제안사항은 크게 교육여건에 관한 기준과 교수자원 확보와 활용 및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교수자원 확보와 활용에 관한 제안사항들도 전문적 자격을 갖춘 교수의 활용이나 겸임교수 및 참여교수의 활용 확대 등의 일부 제안들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교수수급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임교수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더욱이 교육정책과 관련된 제안 사항들은 아직 제안으로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경영학 분야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교수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경영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교수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박사과정 학생과 교수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대학들은 연구 실적을 전임교수 채용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각 학회 차원에서 Doctoral Consortium을 통해 국내 박사학위 학생 및 취득자에 대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학술대회의 참석과 학회지에의 투고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학위취득 요건

〈표 3-1〉 교수수급 관련 선행연구 제안사항

연도	연구명(연구자)	교수수급 관련 제안사항
1989	경영학분야 교수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손태원·권태형)	- 先 교수확보, 後 대학정원 조정 - 교육의 질적 주요 지표 공개(학생/교수비율 등)
1996	대학원 중심교육과 경영학 교육의 방향 (남상구·강준구·김언수)	- 전임교수인력 확충 - 야간 경영대학원 축소 - 박사과정 학생 강의 활용 - 임기제 외부강사 활용 확대
2004	한국경영학 교육의 위기와 대응방안 (최만기·김주엽·손태원)	- 교육여건 개선 - 교수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의 교수채용 - 겸임교수 및 참여교수 적극 활용
2004	경영학 교수수급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박헌준·권태영)	- 국내 박사과정의 질적 향상 - 외국 대학 박사과정 입학률 제고 - 해외 박사 학위 취득자 귀국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교수이동성에 대한 근본적 대처

* 연구자 정리

을 강화하여 연구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지에 등재하는 등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질을 검증 할 수 있는 검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경영교육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위취득 이후에도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내에 공인된 Post Doctoral Program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Post Doctoral Program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이상 해외학술 경험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임 교수로서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대학들의 전임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각 대학마다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임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임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기준 충족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도 기준이 충족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

상으로 임용을 실시한다면 임용과정에서 자격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임교수의 채용은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모두 채용에 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과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채용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교환하고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용박람회 및 채용설명회를 통합 학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전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임교수의 채용에 관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국내 선도 대학들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대학들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회수율이 22.5%로 낮아 보

〈표 3-2〉 전임교수 규모별 전국 경영학과(계열)설치 대학 수 (단위: 개교)

전임교수 수	30명 이상	29~15명	14~10명	10명 미만	기타
대학 수	27	43	37	44	18
설문 응답대학	14	13	6	4	1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알리미” 검색자료(2009년도 기준)
 * 기타 : 사이버 대학 및 특수 대학(종교대학 포함)

이지만 모집단의 수가 169개로 경영학과(계열)가 설치된 대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연구와 관련자료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는 전국 경영학과(계열) 설치 대학을 전임교수 규모로 분류하고 있다. 전임교수가 30명이상인 대학은 27개 대학이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 대학 중 전임교수 30명 이상의 대학은 14개 대학으로 전임교수 30명 이상 대학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본 연구의 설문자료들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수 수급에 관한 각 대학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며, 기초자료들이 통일된 기준과 체계 없이 각 기관마다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초자료 구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임교수 수급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학분야 교수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교육은 공공재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정부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경영학 교육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공급하는 “공공재 창출”의 과정이다. 그런데 정부나 기업은 4년간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대학에서의 경영분야 인재양성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우선 경영학 교육을 전적으로 개개인의 투자나 대학 스스로의 재원 또는 기업의

시혜적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원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닌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경영학이 최고의 인기 학문 분야이며 취업률도 매우 높은 분야로 별도의 지원 없이도 발전하는 교육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경영분야 인재양성은 공학 분야나 법학 분야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과 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성을 띤 교육영역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왔고, 경영분야는 매우 소홀한 대우를 받아 온 것이 정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BK21정책이나 누리사업 등도 이공계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인문사회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오고 있지만 경영학 분야의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BK21을 통해 “전문경영대학원”에 대한 지원 육성이 그나마 처음 시도된 정책이지만 이는 MBA인력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며, 학부교육이나 교수육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경영교육인증제도의 확산과 경영혁신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여타의 많은 학문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BK21

정책이나 WCU정책을 통해 박사급 인재양성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경영학분야의 박사인력 양성에는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 박사인력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국내공급인력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현실에서 경영교육의 질적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영역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외박사학위 취득자들의 국내유인 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들의 경제적 보상과 연구여건을 과학이나 공학 분야와 같이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 학술대회에의 지속적인 참석과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및 해외 학술지에의 투고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SSCI급 연구지에 게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몇몇 대학들에서 연구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이나 자녀교육 등 복지 분야 여건이 상당부분 미흡하여 귀국을 꺼리는 학위취득자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선도대학들이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교수요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영학교육 시장에서도 박사학위자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박사학위취득자들의 대학교수 채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졸업 후 연구제도(Post Doctoral Program)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공인된 국내 Post Doctoral Program을 신설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BK21이나 WCU 지원정책이 MBA인력 양성이나 일부 선도 대학의 연구력 증진에 맞추어진 비중을 “교육”과 “강의”가 균형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상당수가 실무에 종사하는 Part-time 박사학위 취득자인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자격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비정년 전문 강의교수로 활용하는 방법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경영교육의 적절성(Relevance)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수한 MBA나 MS학위 소지자들에게 산학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경영의 과제들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수직을 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순백(2002), “한·미 경영교육의 비교와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영교육학회**, 28, 1-32.
- 남상구·강준구·김언수(1996), “대학원 중심교육과 경영학 교육의 방향,” **한국경영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36-70.
- 박현준·권태형(2004), “경영학 교수 수급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한국경영학회·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 소덕진 외 47명(1988), “한국경영학 30년 -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태원·권태형(1989), “경영학분야 교수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1989년도 한국경영학회 동계 학술연구 발표 논문집**.
- 손태원 외 6명(2004), “한국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한국경영학회·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심포**

지업 자료집.

송계충(1999), “경영관련 교육에서의 학부제 도입의 배경과 현황,” **경영교육연구**, 1(2), 123-138.

신동엽(2000),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비미국형 경영학교육의 가능성: 유럽 3대 경영대학의 교육제도 혁신과 경쟁우위의 원천,” **2000년도 하계 경영관련 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미숙·최남희(2001),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의 시스템 불균형성 분석,” **창립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시스템다이나믹스학회**, 2(1), 101-125.

최만기·김주엽(2005), “한국 경영학 교육의 위기요인과 극복전략”, 미발표논문.

최만기·김주엽·손태원(2004), “한국 경영학 교육의 위기요인과 대응방안,” **한국경영학회·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황일청(1988), “경영학교육의 과제: 문제의 재규정과 그 대책,” **소덕진 외 47명, 한국경영학 30년-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70-94.

황일청(1999), “경영학교육 개혁의 우선순위: 대학이 지닌 문제의 올바른 인식부터,” **경영교육연구**, 3(1), 11- 3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교육통계서비스 (std.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외국박사학위 종합정보시스템

AACSB eNEWSLINE

A Study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Business Professors in Korea

Tae Won Sohn* · Joo Youp Kim** · Min Soo Kim*** · Hun Sik Jung****

Abstract

Among the problems in business education in Korea, the lack of full-time professors is the most noticeable.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identify the problems around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business professors in Korea, and contribute to formulating policies relevant to the solutions. Through the surve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4-year colleges(universities), which have the department of business that offers a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bout the students, full-time professors, doctoral programs, and curriculum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the students per a full time professor reached 44.2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while it was 24.5 in the extent of the whole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The increase rate of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surpassed the one of the whole university, but the increase rate of the full-time professors was lower than that. The employment of full-time professors was increasing mainly in the universities that were accredited or preparing for the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which clarified that the adoption of the accreditation system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business education.

On the other side, the influx of the people with doctoral degree from foreign universities into Korea was rapidly decreasing recently, but the supply of full-time professors have been dependent upon them. Thus, it is required for Korean universities to systematize the cultivation of competent full-time professors by concentrating on the doctoral program. To improve the business education to meet the global standard, the cultivation system for stable supply of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full-time professors should be supported by the academia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terms of finance and policies.

Key Words: Supply and Demand of Professor, Full time professor, Lecturer, Business education,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KABEA(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